

일본 너는 누구냐, 日 파헤치는 강좌 눈길

KNOW JAPAN, NO JAPAN!

시민자유대학 특별강좌 눈길
지역 미술관 탐방
영화로 만나는 역사
고전읽기 등 다양한 강좌

세계시민의 눈으로 학문과 예술을 연구·교육하는 시민자유대학(학장 조운호)이 가을학기 일본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를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시민자유대학 가을학기는 일본 특집 강좌 'KNOW JAPAN'을 비롯해 '사건과 영화', '중세철학의 얼굴들',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Fall in Art'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주말 특강, 'KNOW JAPAN'

이번학기 백미는 주말 특별 강좌 'KNOW JAPAN'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촉발된 한일의 갈등국면에서 일본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는 취지다. 역사, 경제, 문화 사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일 관계를 고찰한다. 특히 경제 분야는 최근 학계의 각광을 받고 있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의 '일본경제 집약의 성격과 전망'을 비롯해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향 교수,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등 내로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11명이 강사로 참여 눈길을 끈다. 평소 만나보기 어려운 전문가들의 강의를 분야별로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요일 오전 10-12시30분, 오죽동 광주교육연수원.

◆지역미술관 탐방, 'Fall in Art'

'Fall in Art'도 단연 이번 가을학기 야심찬 기획 중 하나다. 가을을 맞아 지역 미술관과 신생예술공간을 탐방하며 예술과 자연의 향취를 만끽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주말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물론 무등현대미술관, 의재미술관, 뽕뽕브릿지, 해동문화예술촌 등 지역의 예술공간을 찾아 전시를 경험하며 도시(마을)의 일상과 공간에 개입하는 예술의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미학박사 최행준 시민자유대학 교수와 미술사를 전공한 김허경 전남대 강의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탐방을 이끌어 익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요일 오후 2-5시 미술관, 문화공간.

◆사건과 영화

'사건과 영화: 역사를 보는 영화의 시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굵직한 사건들을 영화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다. 유럽의 68혁명('몽상가들'),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인 학살('엑트 오브 킬링') 등 20세기 현대사를 영화를 통해 살펴본다. 세계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이상훈 프로그래머의 진행으로 매주 화요일에 전개된다. 화요일 오후 7-9시 GIST 도서관 소극장.

◆중세의 또 다른 얼굴을 찾아

'중세철학의 얼굴들: 새로쓰는 지중해 중세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중세의 얼굴을 만난다. 치열하게 국가론을 다투던 중세, 노예 해방론과 국제법의 형이상학적 근거가 마련된 중세 등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세 철학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서유럽 중심의 중세가 아닌 '지중해 중세 철학'을 만나는 자리다. '신성한 모독자'와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의 저자인 유대철



일본은 당최 어떤 나라인가. 세계시민의 눈으로 학문과 예술을 연구·교육하는 시민자유대학이 일본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를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매주 토요일 전개되는 특강에는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다. 사진은 시민자유대학 주말특강 모습.

■ 'KNOW JAPAN' 강좌 일정

날짜	강사	주제
9월21일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일본 경제집약의 성격과 전망
9월28일	김향 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근대 일본 국제법사관의 계보
10월 5일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일관계
10월12일	박수철 교수(서울대 동양사학과)	근현대 일본의 '사건'과 에도시대
10월19일	김성은 교수(전남대 일어일본학과)	근대 일본의 힘: 번역
10월26일	하중문 교수(한신대 일본학과)	한일 역사 갈등, 그리고 일본의 보수와 진보
11월 2일	김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음)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11월 9일	박규태 교수(한양대 일본어문화학과)	일본문화코드: 국외외국인 '다시 읽기'
11월16일	이영진 연구교수(사건대 트랜스내셔널문화연구소)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전쟁-기후와 에도의 정치
11월23일	박규용 교수(전남대 철학과-시민자유대학 이사장) 조운호 교수(전남대 철학과-시민자유대학 학장)	종합토론 한국과 일본에서 보낸 아랍의 주체화: 시민, 자유,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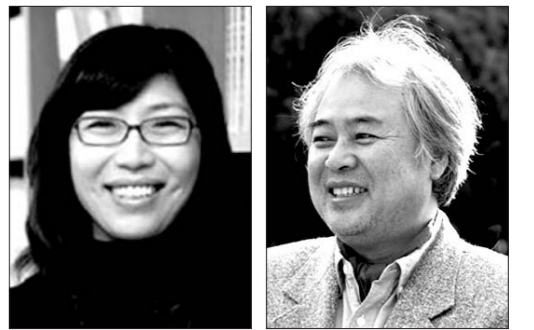
오감연구소장이 진행한다. 수요일 오후 7-9시 전남대 인문대1호관 106호.

◆역사 고전이 최고, 고전강독

시민자유대학에서 동서양의 고전을 선정한 강독하는 고전읽기 가을 고전은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다. 이 책은 현대 프랑스철학의 대표 주자 들뢰즈가 쓴 소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플라

톤, 에피쿠로스, 흄, 스피노자, 칸트, 니체, 베르그송 등을 경유하며 펼쳐는 들뢰즈의 사유를 엿볼 수 있다. 난해하기로 유명한 들뢰즈의 철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요일 오후 7-9시 전남대 인문대1호관 313호.문의 062-961-1110

조각진기자 mdeung@srb.co.kr·김옥경기자



정지아 황지우

무등공부방 9월 강좌 시작

'빨치산의 딸' 정지아 작가
전 한예중 총장 황지우 참여

지역의 대표적 시민공부모임 무등공부방이 3일 사진작가 박하선씨의 '조선의용군의 눈물'을 시작으로 9월 강좌에 돌입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전개되는 무등공부방 이번 달 강좌는 '빨치산의 딸'의 저자 정지아씨와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 강사로 참여 눈길을 끈다.

정지아씨는 '기억의 힘'을 주제로 오는 10월 특강에 나서고 황지우 전 총장은 17일과 24일 2회에 걸쳐 '미학'과 '문학'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정지아 작가는 1990년 빨치산 부모님 이야기를 형상화한 '빨치산의 딸'로 문단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발간 즉시 국가보안법에 걸려 판금조치를 당했으며 출판사 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정 작가는 2011년 고향 구례로 귀향했다. 지금은 조선대 문장교과에서 소설을 가르치며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강정재 전 전남대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하는 시민모임 무등 공부방은 매달 화요일 저녁 상록회관 인근 자체 강의실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현안을 주제로 삼기도 하고 역사와 문화, 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전개된다. 문의 010-8620-9161. 조각진기자 mdeung@srb.co.kr

중국에 우리 전통 가락 올려퍼진다

시립국악관현악단, 4~6일 중 공연
국악 등 한국 고유 문화 진수 선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중국에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4~6일 중국 시안 TV 방송국 광전대극원, 조이시티 광장에서 5차례의 공연을 갖는다.

주시안 대한민국총영사관과 중국 시안시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중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한국의 전통 국악공연을 선보임으로써 국악의 고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한상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국악관현악곡을 비롯해 일후 협주곡, 노래곡, 타악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공연장, 광장 등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연 장소에 어우러지도록 각각의 공연을 구성했다.

4일 시안 TV 방송국 광전대극원에서는 일후 협주곡 '향', 노래곡 '내사랑 뽕뽕, 뽕뽕', 타악협주곡 '타' 등을 선보인다. 첫 공연인 일후 협주곡은 중국 악기 중 대표적 현악기인 일후를 연주하는 곡으로 중국을 비롯, 동양 음악의 맛을 표현한다.

5-6일 조이시티 거리에서는 관객들과 교감

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대금, 가야금 2중주 '메나리', 가야금 2중주 '침향무', 대금 독주 '청성곡', 피리3중주 '춤을 위한 메나리' 등이 연주된다.

한상일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는 "광주의 문화 사절단으로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국악의 맛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진기자 hj@srb.co.kr



한상일 상임지휘자

남도 수묵의 향취 느껴요

광주시립미술관, '남도수묵화협회' 전
김대원 작가 등 46명 작가 참여

남도 수묵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미술단체초대 '남도수묵화협회'전을 개최한다. 개막행사는 오는 9월 3일 오후 5시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지역 미술단체의 활성화와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미술단체 초대전을 개최해 오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는 남도수묵화협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대원 작가를 비롯해 46명의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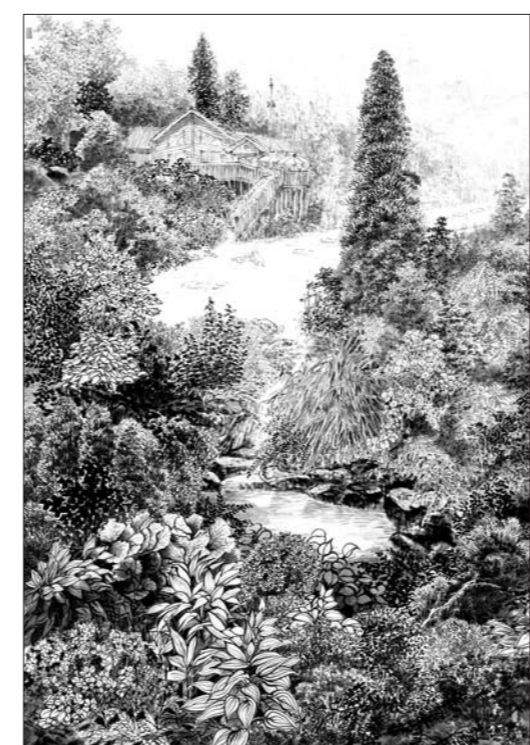
남도수묵화협회는 전통적인 수묵화의 가치

를 바탕으로 남도 수묵화의 맥을 잇고 새로운 도전과 수묵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난해 2018년에 창립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단체다.

특히 최근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가 개최돼 오랫동안 침체됐던 수묵화에 대한 관심과 이와 함께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수묵화는 더 이상 낡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도 남도수묵화협회 결성의 계기가 됐다.

남도수묵화협회 회원들은 원로작가부터 청년화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묵화의 정신과 특징을 표현해온 작가들로 구성돼 있다. 남도 수묵화는 예향 남도의 정취를 가장 잘 담 아낸 예술 장르로 오랫동안 이지역의 문화발전

에 크게 기여해왔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박인주 작 '어울림'

광주극장, 다큐영화 관객과의 대화

6일 '이타미...' 정다운 감독
7일 '동물, 원' 왕민철 감독

화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과 만남의 자리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먼저 2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둔 웰메이드 건축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를 연출한 정다운 감독과의 대화가 6일 오후 7시20분 영화 상영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타미 준의 바다'는 디아스포라 건축가 이타미 준의 삶을 섬세하게 따라가는 영화로 이날 관객과의 대화는 유우상 교수(전남대 건축학부)의 진행으로 정다운 감독과의 대화 및 Q&A 시간으

로 이루어진다. 5일 개봉하는 '동물, 원'은 울타리 뒤 보이지 않는 세상, '반야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원의 야생동물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잔잔한 일상을 담아낸 감성 다큐멘터리다. 제10회 DMZ 국제다큐영화제 '젊은 기러기'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3대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손꼽히는 '2019 핫독스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7일 오후 3시 '동물, 원' 상영 후 열리는 관객과의 대화는 왕민철 감독과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을 비롯해 대관령 목장, 유기 동물 보호소 등에서 활동중인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수의사이자 야생동물 전문가인 최종욱 수의사가 함께한다.

김해진기자 hj@srb.co.kr

'제2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경준)은 지역·공공 캐릭터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캐릭터 활용을 돕기 위해 오는 6일까지 '제2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2019 대한민국 지역·공공 캐릭터 대상)' 참가자를 모집한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정책·지역·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국민들

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우수 캐릭터를 선정하는 대상으로 올해 2회차를 맞이한다.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작품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상 1작품(상금 1,0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 1작품(상금 500만원), 우수상 1작품(상금 500만원), 특별상 5작품(상금 각 200만원) 등 총 8개 작품에 돌아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 참조. 뉴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의미 '화폭에'

백미리내 작가 '하늘과 땅 사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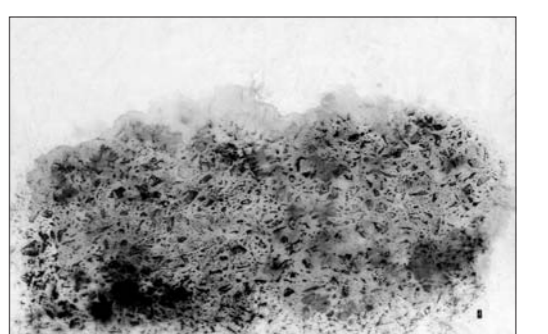
자연과 인간의 순환, 흔적 등 삶의 의미들을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예술공간 집은 오는 19일까지 광주를 기반으로 꾸준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화가 백미리내 작가의 '하늘과 땅 사이'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백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다. 백 작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화 청년작가들 중 드물게 추상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첫 개인전에서 '땅과 땅 위의 것'이란 타이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순환-울림', '흔적-순환' 등을 주제로 삶의 근원적 물음에 천착한 작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또 자연만물의 순환의 중심에 있는 모래를 붓과 같은 도구로 활활해 화면 위에 그려나가는 독



백미리내 작 '땅의 이름'

특한 방식으로 추상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등 먹과 종이, 모래 등 자연 본래의 재료들을 충분히 활용한 작품들로 땅 위의 모든 존재들이 순환해 가며 남기는 흔적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기존의 추상 작품들과 더불어 새롭게 시도한 탁본작업들도 선보인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